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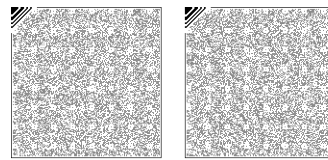
다 함께하는 사회구현

새보람

SAEBORAM

Voiceye Saeboram News

소리로 읽는 새보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2)796-4280

www.kappd.or.kr

제253호

2014년 2·3월

HEADLINE

뉴스 2P

염전노예 사건 사회적 파장 확산



특집 12~13P

Barrier-Free 글로벌 탐방기



건강 15P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지키세요!



국제 18P

뉴욕 패션위크 무대에 오른 장애인



‘제23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4월 개최

26일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세계 정상급 선수들 출전



‘제23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가 오는 4월 26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열린다. (사진-지난 22회 대회 모습.)

오는 4월 세계 톱클래스 휠체어 마라톤러들이 서울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는 4월 26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제23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는 국내 유일의 국제장애인올림픽 육상위원회 공인 대회로 매년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참가해 명실상부한 국제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열린 대회에서 대회 신기록과 아시아 신기록이 나온바 있어 올해 대회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지난해 1시간 20분 52초로 가장 먼저 풀코스 결승점을 통과한 스위스의 마르셀 후크(Marcel Hug) 선수는 2008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에니스트 밴다이크(Emst Van Dyk) 선수가 세운 대회 신기록(1시간 21분 46초)을 경신했다.

그리고 마르셀 후크 선수에 0.07초 뒤져 2위를 차지한 일본의 호키노우에 코타(Hokinoue Kota) 선수는 아깝게 우승을 놓쳤지만 아시아 신기록을 수립하는 기쁨을 누렸다.

특히 올해는 기존에 치러지던 전문 휠체어 육상 선수들의 풀(42.195km)·하프(21.0975km), 휠체어 생활체육 선수들의 5km 경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5km 어울림 종목에 전문 핸드사이클 선수들을 위한 하프(21.0975km) 이벤트가 추가돼 눈길을 끈다.

지장협은 3월 초부터 대회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수 사고 예방, 대회 개최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제23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는 지장협과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공동주최하고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KBS 한국방송이 후원하며 신한금융그룹이 협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한다.

장애인정책연대,

장애계 요구 공약 개발 나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단체들이 장애계 요구 공약 개발에 나섰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회가 장애인단체와 함께 구상한 ‘2014 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정책연대(이하 장애인정책연대)’는 지난해 9월부터 장애인 복지 정책 공약 마련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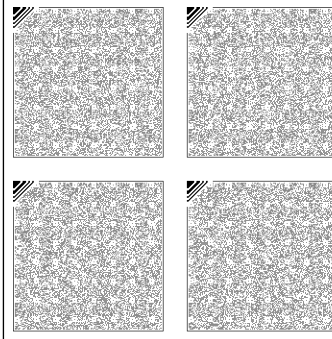
장애인정책연대는 연대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장애인 인권·자립·고용·편의·교육 등을 핵심 어젠다로 설정, 17개 시·도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법률 제개정·예산편성·건축인허가 시 장애인 인권 영향 평가 실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복지 강화를 위한 조례 제개정, 장애인 직업시설 증설, 지자체 장애인 전담부서의 장애인 당사자 고용, 장애인 긴급 활동지원 및 위기센터 운영, 탈시설 지원 및 체류권 확대 설치 운영, 저상버스 및 특별운송체계 확립, 장애인 수당 및 연금 확대, 주거복지·주택개조 활성화, 공공서비스 웹 접근성 보장 등 10개의 장애계 공약 요구안을 도출한 상태다.

장애인정책연대는 세부 사항을 조율한 후 최종안을 마련하고 오는 4월 광역시·도 후보자와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 관철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편 장애인정책연대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산재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청각장애인협회, 한국DPI,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해냄복지회,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12개 장애인 단체로 구성돼 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염전노예 사건’ 사회적 파장 확산

장애인단체·시민사회단체,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정치권도 장애인 인권침해 근절 방안 필요성 지적



‘염전노예 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2월 25일 경찰청 앞에서 가해자 엄중처벌과 법적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염전노예 사건’은 장애인들이 전남 신안군 외딴섬으로 팔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사건으로 지난 2월 서울구로경찰서가 피해자 두 명을 구출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채 모씨는 2008년 한 직업소개소 직원에 의해 염전으로 팔려가 5년 2개월 동안 하루 5시간의 수면도 취하지 못한 채 염전일 뿐만 아

니라 염전업주의 집안일까지 했지만 월급 한 푼 받지 못했다.

또 다른 피해자 시각장애인 김 모씨 역시 노숙을 하다 무허가 직업소개업자의 말에 속아 채 모씨가 있는 염전으로 팔려갔고 1년 6개월 동안 무일푼으로 일해야 했다.

이들은 염전업주에게 지속적인 폭행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고 결국 염전업주와 직업소개업자는 구속됐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

려지면서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경찰청은 실종자, 무연고자, 임금체불자 등 총 370명의 피해자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3월 3일 밝혔다. 이 가운데는 장애인도 49명이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실종자와 무연고자를 가족 또는 보호시설로 인계하

고 감금, 폭행, 횡령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주 19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염전노예 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결성하고 법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2월 25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염전노예 사건은 임금체불의 문제가 아닌 장애인 인권유린 문제”라며 “이번 사건을 취약계층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 사건으로 규정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장애인 착취 및 학대 신고 포상제도 도입, 장애인 인권교육 의무화, 진술조력인 제도 의무화, 경찰청 내 취약계층 인권유린 해결 기구 또는 전담 부서 설치 등이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장애인 인권침해

해 근절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월 13일 열린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전남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외에도 형제복지원 사건, 천안 도가니 사건 등과 같은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이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TF 조성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에게 촉구했다.

이날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염전노예 사건과 관련해 경찰, 고용노동부, 지자체가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도 관심을 갖고 장애인 인권, 노동 문제에 관여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에게 장애인 권리옹호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기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장애인 권리옹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 P&A 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권리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피해자에 대한 보호제도, 법에 의한 조사권한,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제기 등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P&A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장애인 권리옹호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은 물론 관계부처와 협조해 장애인 인권 조사도 꼭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면 장애인 인권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보람 제253호 2014년 3월 20일

회 장·발행인/김광환 편집장/오창석 기자/김금주 발행처/(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이룸센터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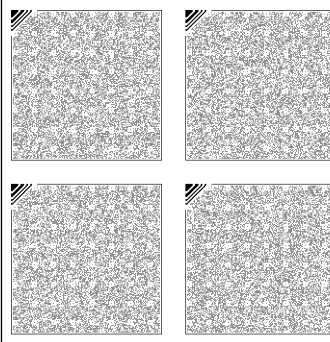
등록번호 / 영등포 라 00280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 kappd@kappd.or.kr

대표전화:(02)796-4280 FAX:(02)796-4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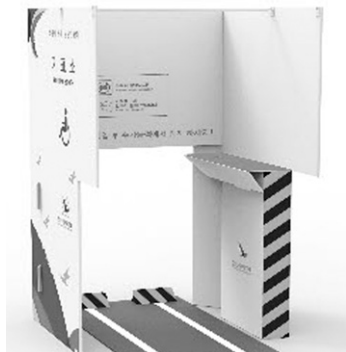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장애인 참정권 침해하는 장애인용 기표대

장애계, 장애유형 고려한 기표대 제작 요구 선관위, 장애인들 의견 반영해 일부 개선



논란이 된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개된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가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 기능을 보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를 공개했으나 일부 장애인만 투표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는 휠체어나 스쿠터를 탄 장애인이 기표대로 진입한 후 오른쪽에 위치한 기표탁자로 향하기 위해서 상체를 90도 가량 틀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2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기표

체험을 하고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가 상반신과 양손, 양팔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만 투표가 가능한 점, 신형 일반형 기표대의 경우 전동휠체어의 크기에 따라 접근이 불가능한 점, 접근이 가능하더라도 기표판이 높아 사용이 불가한 점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이에 장추련은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가 장애인들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

회에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 제작을 철회하고 지체·청각·시각·발달 등 다양한 장애유형을 고려한 기표대를 제작해 모든 장애인들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3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요청을 하기도 했다.

2014 지방선거장애인연대로 3월 4일 성명서를 내고 장애인 참정권을 침해하는 기표소 제작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 촉구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1일 장애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를 개선하고 샘플을 공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른쪽에만 부착되어 있던 기표판을 입구정면에도 설치하고 부착되어 있는 기표판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책받침 형태의 A4 용지 크기 임시기표판을 마련했다.

지장협·장고협, 장애인 복지 발전 위한 MOU 체결

인적 자원 교류 및 사업 공동 추진 등 약속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는 2월 3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협회장 조항현, 이하 장고협)와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장협과 장고협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우수한 인적 자원 교류를 활

성화해 장애인 복지 사업 추진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장애인 고용, 정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장애인 복지사업을 공동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장고협과 서로 협력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 상호 발전은 물

론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고협 조항현 중앙회장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장애인 고용증진사업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협약 내용과 관련해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과 장고협 조항현 중앙회장이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설

장애인의 비례대표 할당제를 당헌과 당규로 보장하라!

바야흐로 전국이 선거정국을 맞이하게 됐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지역위원을 선출하게 되는 지방선거로 인해 온 나라가 각종 정치 이슈와 뒷이야기로 들쭉이고 있다.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는 무엇보다 ‘정당 무공천’일 것이다. 새 정부의 공약사항이었지만 여당에서는 ‘무공천’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당론을 발표했다고 야권은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당규에는 국회의원 및 시·도위원의 비례대표 추천에 여성을 50%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과 여성 등의 정치소수자를 배려한다면 여성 추천비율만 당규로 정하고 있다. 이제는 장애인도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 추천 비율을 당규로 정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이 각 50%의 비율로 추천되고 있다면 장애인도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10%이상은 추천될 수 있도록 당규로 정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06년 당시 민주노동당은 비례대표의 10%를 장애인에게 할당하고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의 5%를 장애인에게 할당하도록 당헌을 개정하여 장애인에게서 큰 호응을 얻었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에게도 장애인의

정치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당헌과 당규에 명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기도 했었다.

그동안 장애당사자의 정치참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4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서 장항숙과 정화원을 선택한 이후 장애계의 적극적 요구가 이어지고 장애대중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면서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40명 이상의 장애 정치인이 배출되었고 2008년 총선에서도 8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장애정치인은 정치계 주류에서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워낙에 장애정치인

이 소수이기도 하지만 정치판에서도 장애인의 정치참여의 권리로서의 인정보다는 배려 차원에서의 할당이라는 인식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정당정치에서의 한계도 있는 것 같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을 비롯한 각 정당에서는 금번 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의 정치참여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당헌과 당규로써 보장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참정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함을 명심하여 장애인당사자의 정치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

원격의료 도입, 장애계와 의료계 의견 엇갈려

“사용자 입장 배려 필요” VS “안전성 확보가 먼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2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소외계층의 원격의료 도입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원격医료를 사용자, 특히 의료소외계층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영근 기획정책국장은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병원을 가더라도 차량을 이용해야 하고 동네병원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진료조차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의료접근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원격진료가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사무총장도 “간단한



‘의료소외계층의 원격의료 도입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2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진료를 받더라도 병원을 가기 위해 장애인 차량을 부르고 편의시설을 살피는 등 병원 가는 것 자체가 마치 하나의 큰 행사로 느껴지는 장애인들에게 원격의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오진 가능성, 데이터 보안, 장비구입 등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우려하는 부분들은 모두 해결 가능한 문제라 생각한다”며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의사들이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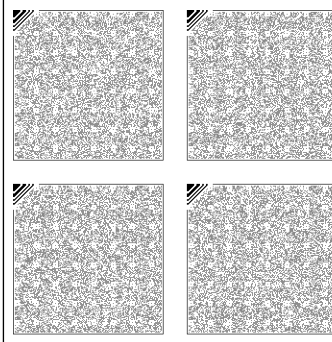
한국장애인연맹 이영석 사무총장은 “의사가 환자를 만나서 대면진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긴 대기 시간에 비해 금방 끝나는 진료, 환자 몇

번 쳐다보지 않는 서비스 정신없는 진료를 할 바에는 원격진료를 하는 것이 낫다”고 꼬집었다.

또한 “원격진료를 인간의 존엄성 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소외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은 “건강유지를 위해 병원을 자주 가야 하는 척수장애인들은 원격의료 도입에 우호적이지만 원격의료의 종합병원 가

소리로 읽는 새보람



는 것 보다 못하다면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며 “완성도 높은 원격진료를 위해서는 정부가 의료소외계층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준비를 잘 해야 할 것”이라 조언했다.

반면 토론회에서 유일한 공급자인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정석훈 책임연구원은 의료소외계층을 위해 원격의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장애계의 입장에 공감하면서도 아직까지 경험적 데이터가 없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 책임연구원은 “원격진료는 환자의 이동, 비용 등을 줄일 수 있어 친환경적 측면에서 장점이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연구가 부족하다”며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학의 최고 정점에 있는 분들로 구성된 의사회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원격의료 도입을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의료계가 원격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들을 좀 더 주체적으로 이끌어 갈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시외 이동권 보장 소송 제기

이동권소송공동연대,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청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장애인단체, 시민사회단체와 이동권소송공동연대를 구성해 3월 4일 교통약자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동권소송공동연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9년이 지났지만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완전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을 진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시내버스는 저상버스가 있지만 광역 간

이동, 시외 이동을 위한 버스는 저상버스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에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는 단 한 대도 없다.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는 뇌병변 장애인 김 모씨는 “경기도 파주에 거주하는 부모님 댁을 방문할 때 광역급행버스를 이용하면 집 근처까지 바로 갈 수 있지만 버스에 승하차 편의시설이 없어 부모님 댁을 방문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이동권소송공동연대는 경기도와 서울시에 거주하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유모차 이용 부모, 버스 계단 이용이 어려운 노약자를 원고로 해 교통행정기관 및 교통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동권소송공동연대는 이번 소송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경기도지사·서울특별시시장에게 저상버스 도입계획 수립 및 도입이행, 버스운송사업자들에게 버스 승하차 편의시설 제공과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했다.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출시

연금수령액 최대 25% 상향 조정

오는 4월 연금 수령액은 높이고 보험료는 낮춘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2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애인의 경우 평균 연금수령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감안해 연금보험료를 낮추거나 연금지급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장애인 사망률 사용과 낮은 사업비 부과 등을 통해 연금수령액을 일반연

금 대비 10~25% 상향 조정한다.

통상 45세 이상인 연금수령연령을 20세·30세·40세 이상, 지급기간은 5년·10년·20년으로 다양화해 선택권도 확대한다.

또한 계약기간 동안 적립금에서 사업비를 분할납부하는 후취형 사업비 체계 운영을 통해 중도 해약자의 환급률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밖에 보험 상품 운용에 따른 이익을 장애인에게 환원해주는 배당형 상품도 설계한다.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발표

3개 분야 중점과제 및 세부사업...5개년 계획



양원태 서울시 장애인 명예부시장이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가 2월 12일 장애인 당사자와 인권 전문가들이 10개월 동안 의견 조율을 거쳐 마련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은 5개년 연동계획으로 장애인 권익보장, 중점 권익증진,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 등 3개 분야에

대한 중점과제와 세부사업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장애인 권익보장

먼저 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해서 서울시는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서울시립 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4층에 장애인인권센터를

개소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장애인 분야 진정사건과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다.

장애인인권센터는 즉각적인 법률 정보 서비스 제공, 소송대행, 인권상담 및 사례관리, 인권교육, 피해자 발견 및 등록, 신속한 구제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조사시 장애인의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장애시민 참여배심제를 도입한다.

장애인 관련 계획, 교육, 홍보, 정책을 장애인 관점에서 심의·자문하는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도 출범시킬 예정이다.

■ 중점 권익증진

중점 권익증진을 위해서는 시설 거주 장애인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 및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5년 안에 시설거주 장애인 3천여명 가운데 600명이 탈시설할 수 있도록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을 52개소에서 91개소, 공동생활가정을 172개소에서 191개소로 확충한다.

또한 전세주택 보증금을 7천5백~8천5백만원 지원하고 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을 8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증액 지원할 예정이다.

성인발달장애인의 직업·경제 활동 지원, 일상능력개발 훈련, 긴급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특화시설도 건립한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거점 장애인복지관도 권역별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 기본적 생활권 보장

기본적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는 현재 저조한 장애인 취업 성공률을 끌어 올리고 장애인의 여가·관광 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둔다.

서울시는 취업 후 직장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많은 점을 감안해 1:1 장애인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훈련기간도 최대 1년까지 늘릴 계획이다.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앱 서비스도 제공한다. 서비스가 구축되면 장애인들이 장애인주차장, 장애인화장실, 승강기, 단차 없는 거리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난항을 겪어온 강원도 양양군 하조대 해수욕장 장애인 휴양시설도 건립돼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오는 2016년부터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 강종필 복지건강실장은 "이번에 발표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은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만들고 서울시가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이 계획이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앞으로 장애인당사자들과 조금씩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업무수행 중 의족파손 요양급여 지급해야”

인권위, 소송 관련해 대법원에 의견 제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가 업무수행 중 장애인 근로자의 의족이 파손된 경우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2월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의족을 착용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장애인 A씨는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의족이 파손돼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의족의 파손은 신체의 부상이 아닌 물적 손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양급여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불승인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

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족의 파손을 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A씨는 위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의족은 신체의 일부가 아니므로 그 파손을 부상이라 할 수 없어 요양급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요양급여의 요건이 되는 근로자의 부상을 문언적 의미 그대로 ‘생물학적인 신체의 상처’로 해석하면 장애인 근로자는 비장애

인 근로자와 달리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차별적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는 주로 아파트의 시설관리,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다리 한쪽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실질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의족은 A씨가 경비원으로 종사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권위는 “A씨의 의족 파손을 부상의 범위에 포함시켜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의견을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 실시

중증장애인 대상...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국립재활원이 전국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운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립재활원이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 1~4급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과 동 장애유형을 가진 장애인 중 5~6급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은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 전문 강사가 특수차량을 가지고 직접 교육생을 찾아가는 방식

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2~3시간씩 진행된다.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과 관련한 문의는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02-901-155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립재활원은 지난 1999년부터 장애인 운전교육을 시작해 2011년부터는 전국으로 찾아가는 장애인 맞춤형 운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장고협, 청소년 장애인 인식개선에 기여

중·고등학교 방문 교육 실시...전액 무료

구분	교육전		교육후		장애인인식 개선 증가도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부정적	
평균	28.0%	72.0%	83.3%	16.7%	55.3%p↑
감정	43.2%	56.8%	85.0%	15.0%	41.8%p↑
신체적 외모	18.3%	81.7%	81.6%	18.4%	63.3%p↑
학습행동	12.4%	87.6%	80.4%	19.6%	68.0%p↑
사회적 행동	28.0%	72.0%	83.3%	16.7%	55.3%p↑

장고협은 2013년 청소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전후 학생들의 인식변화 조사 결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 협회(중앙회장 조항현, 이하 장고협)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장

애인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이 실제로 장애인에 대한 청소년들의 긍정적 인식 변화에 큰 도움

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고협이 지난해 중·고등학교를 방문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기 전후 학생들의 인식 변화를 조사한 결과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교육 전 28%에서 교육 후 83.3%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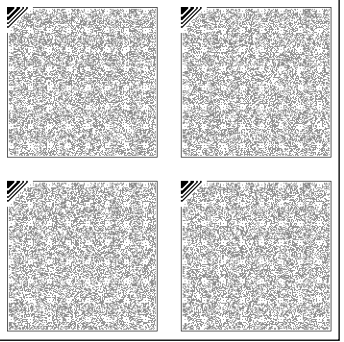
장고협은 장애인과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 함께 일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고용노동부의 지원으로 중·고등학교를 방문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다.

장고협은 올해도 전국 중·고등학교 130개교를 방문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은 전액 무료다.

청소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고협 기획팀(☎02-754-38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한편 장고협은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 만화집 배포, 장애청소년 취업지원을 위한 토크 콘서트 개최, 근로지원인제도 활성화를 위한 장애청소년 Best Friend 표창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장애대학생 맞춤형 캠퍼스 도우미 사업 확대

48억9300만원 투입...431개교에 도우미 2600명 배치

대학 캠퍼스에서 장애대학생들의 학업과 이동 등을 돕는 맞춤형 캠퍼스 도우미 사업이 확대된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장애대학생 맞춤형 캠퍼스 도우미 사업 예산을 늘리고 대상 범위, 배치 도우미 인원 등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2월 5일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장애대학생 맞춤형 캠퍼스 도우미 사업에 지난해 보다 14% 많은 48억9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사업 대상 범위는 기존 416개교에서 431개교로 늘리고 배치 도우미 인원도 지난해 2500명에서 2600명으로 늘린다.

아울러 중증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경증장애 학생에 대해서도 도우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대학 내 자체 특별지원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중증 및 저소득층 가정 학생이 사업 지원 대상에 우선 포함된다.

도우미 1인당 지원액과 집행 방법 등은 일반도우미 연 240만

원, 전문도우미 연 1110만원, 원격교육 지원 전문도우미 연 2000만원 내에서 대학측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도우미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장애대학생에게 필요한 특강 및 취업 프로그램에도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칼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오창석 과장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미래모습은?

인터넷과 정보저장매체가 발달하면서 최근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빅데이터'라는 것이 있다. 말 그대로 수많은 정보와 통계를 의미하는데 사실 그리 피부에 와 닿는 단어는 아니다. 나에게 어떤 변화된 일이 일어난 적도 없고 그리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을 접한 기억도 없는 듯하다.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한다는데 대체 그 정체가 무엇일까? 가령 내가 어떤 대형매장에 방문할 때마다 생선을 구입한다고 하자. 그러면 컴퓨터가 나를 생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분류한다. 그 다음 생선과 관련된 행사를 하게 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할인쿠폰이나 품질 좋은 생선 정보를 나에게 보내 주는 것이다. 얼마 전 미국에서는 한 여고생이 임신한 사실을 아버지가 마트에서 보내준 신생아준비용 할인 쿠폰을 보고 알아내서 화제

가 된 적이 있다고 한다. 여고생이 구입한 물건패턴을 통계내고 분석한 데이터에 따른 서비스에 의한 것이라니 매우 놀랍다.

이러한 경우는 남의 나라 상상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나는 깜짝 놀라는 경험을 했다. 출근을 하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니 휴대폰이 내가 출근하고 있다며 평균 출근시간이나 교통 상황 등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언제 이런 어플을 설치했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나의 출퇴근정보를 통계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얼마 전 개발된 휴대폰 어플은 나의 휴대폰데이터를 분석해 보여 준다고 한다. 예를 들면 누구랑 가장 자주 통화를 하는지 아니면 누구랑 가장 길게 통화하는지 순위를 매겨준다. 또 통화내용을 분석해 '사랑해'라는 단어를 몇 번 사용하는지 또는 전화통화를

할 때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등을 알려주는 식이다. 이렇듯 우리가 생활하는 행동이나 습성 등을 분석해 통계를 내고 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안하는 프로그램이 한창 개발중인 것이다.

그럼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어떻게 달라질까? 만약 장애인이 의수와 관련된 제품을 구입한다면 구입처에서는 나의 장애유형을 손절단장애인으로 파악하게 된다. 그리고 구입한 의수의 가격과 특성을 통해 나의 경제수준이나 제품 선호도도 알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절단장애인을 위한 관련정보나 프로그램을 안내 한다. 또한 손절단장애인과 관련된 육구조사지를 보내고 답변하면 더 세부적이고 자세한 정보를 분석해낸다. 이를 근거로 개별화된 정보 등을 안내해주게 되는 것이다. 복지관은 또 어떠한가? 복지관에서도 내가 이용

한 몇몇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를 활용한 개별적 접근 프로그램을 개발해 낼 것이다. 특히 내가 이용 중에 부족했던 부분을 알아내어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어찌 생각하면 무섭기도 하고 또 악용된다면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을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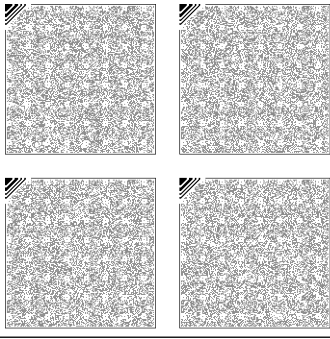
최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입고 착용하는 스마트 기기)들은 나의 체형이나 육체적 활동 등을 분석한다. 잠을 자면서 몇 번이나 뒤척이는지 왼쪽으로 자는지 오른쪽으로 자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장애인 재활기기에 적용된다면 아마도 뇌병변 장애나 다리에 장애가 있는 유형의 장애인이 어떻게 걷고 있는지를 분석해주게 될 것이다. 또 걷는 속도가 어떠한지 왼쪽다리에 어느 정도 힘을 주는지 등도 통계가 가능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에 기반을 둔 재활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다.

아무튼 정보처리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는 더욱 개별화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받게 되고 또 이를 분석 받게 될 것이다. 통계의 시대가 되었을 때 장애인복지는 지금과는 정말 다른 모습을 그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통계들이 진정으로 유용하게 사용된다면 장애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서비스가(일단 물리적인 부분에서는) 제공되지 않을까? 보다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하면서 아울러 개인정보관리와 보안에 깊이 고민해보고 유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 전국 순시 나서

산하 시·도협회 및 시설 점검...발전방향 모색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이 3월 4일 강원지장협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이 지역의 장애인 복지 현안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산하 시·도협회 및 시설 순시에 나섰다.

지장협은 산하에 17개 시·도협회 및 231개 지회를 두고 있으며 54개 장애인 복지시설을 수탁 운영하고 있다.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3월 한 달 동안 인천, 경기, 서울, 강원, 충남, 광주, 전남, 대전, 경남, 부산, 대구, 충북, 세종, 전북 지역을 방문했으며 4월에는 경북, 울산,

제주 지역을 둘러볼 계획이다.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지방 조직의 목소리를 협회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중앙회와 지방 조직 간의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장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 조직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지방 조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윤석연, 이하 대전지장협)는 1월 21일 대전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 ‘2014년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대전지장협 임직원과 지회장 150명은 올 한해 대전지역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은 대전시 염홍철 시장, 대전시 김신호 교육감, 대전시의회 김인식 부의장 등도 참석해 대전지역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

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대전지장협 윤석연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개미 천 마리가 모이면 뗏목을 든다는 속담이 있듯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장애인 복지라는 큰 뗏목을 들어 올릴 수 있는 2014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은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대전지장협 5개구 지회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과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도 진행됐다.

대전 장애인 지도자들, 올 한해 각오 밝혀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위해 더욱 노력할 것”



대전지장협 윤석연 협회장과 지회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애인 가정 자녀 장학금 전달식 열려

대전지장협 동구지회, 27명에 1110만원 지원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지회장 최재천, 이하 대전지장협 동구지회)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 자녀 돕기에 앞장서고 있다.

대전지장협 동구지회의 ‘작은 사랑후원회’는 2월 28일 장애인 가정 자녀 27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작은 사랑후원회’는 이번 전달식을 통해 초등학교생(7명) 30만원, 중학생(5명) 40만원, 고등학생(10명) 45만원, 대학생(5명) 50만원 등 총 111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대전지장협 동구지회 임직원들이 장애인 가정 자녀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작은 사랑후원회’ 관계자는 “아가는 장애인 가정 자녀를 발굴해 희망을 전하겠다”고 전했다.

저소득 장애인에

설 차례상 비용 지원

제주지장협, 5가구 선정해 상품권 전달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부형종, 이하 제주지장협)가 설 명절을 앞두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의 차례상 비용을 지원했다.

제주지장협은 1월 27일 저소득 장애인 가정 5가구에 각각 20만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을 전달했다.

제주사랑상품권은 제주지역 재래시장과 마트, 슈퍼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제주지장협 부형종 협회장은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상품권이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대구지장협, 임직원 워크숍 열어

역량강화 교육 실시...사업계획도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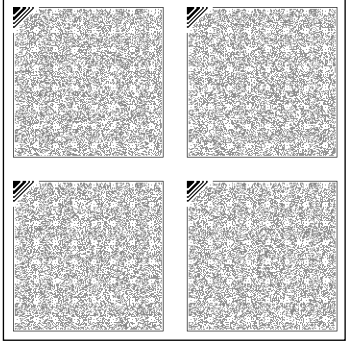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이 대구지장협 김창환 협회장 및 임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창환, 이하 대구지장협)는 2월 7일 대구 평산아카데미 컨벤션홀에서 임직원 워크숍을 열고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의 '편의센터의 발전방향과 과제', 한국서비스코칭센터 박소영 강사의 '감성코칭'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대구지장협 임직원들은 올해 사업계획을 설계하고 향후 협회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대구지장협 김창환 협회장은 이날 임직원들에게 “올 한해도 대구 지역 지체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원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 실시

강원지장협, 4월까지 권역별 교육 진행



2월 진행된 속초권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흥수, 이하 강원지장협)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보조인 양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장애

인 활동보조인 양성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강원지장협은 2월 속초권역 교육을 실시했으며 3월과 4월 원주·강릉권역 교육을 계획하

고 있다.

교육은 장애 유형별 이해와 대처방법, 장애인 복지 관련 제도,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역할 등에 대한 강의로 이루어진다.

중증장애인과 함께하는 나들이 행사

경남지장협 창원시지회, 제주 방문



제주를 방문한 나들이 행사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상남도지체장애인협회 창원시지회(지회장 박성호, 이하 경남지장협 창원시지회)가 중증장애인과 함께하는 나들이 행사를 가졌다.

경남지장협 창원시지회는 3월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중증장애인 70여명과 제주를 방문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중증장애인들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제주 관광지를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경남지장협 창원시지회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해 외출은 물론 여행이 힘든 중증장애인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북지장협 의성군지회, 선행 실천

지역 장애인 가정 방문해 쌀 전달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의성군지회(지회장 황사흠, 이하 경북지장협 의성군지회)가 지역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따뜻한 선행을 실천했다.

경북지장협 의성군지회는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에 걸쳐 장애인 가정 20가구에 쌀을 전달했다.

이번 쌀 전달 행사는 각 기관 및 단체가 경북지장협 의성군지회로 보내온 후원금으로 진행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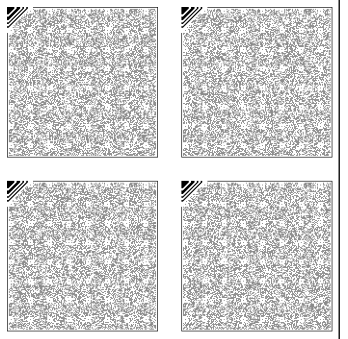
다.

경북지장협 의성군지회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어렵게 살아가는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었다”며 이번 쌀 전달 행사의 취지에 대해 밝혔다.



경북지장협 의성군지회가 후원금으로 쌀 전달 행사를 실시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경기 장애인 편의증진 방안 모색 자리 마련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 워크숍 개최

경기 지역 장애인들의 편의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단장 김기호, 이하 도민촉진단)은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평대명콘도 그랜드볼룸에서 '2014 상반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경기 지역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감시 활동 등을 벌이게 될 경기도 31개 시·군 도민촉진단 요원 12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장애인 편의시설과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앞으로의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근절과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도민촉진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 요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달성장복, 재활연계서비스 추진

장애인 대상 한방진료 · 수지침 치료 등 실시

달성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정우선, 이하 달성장복)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애인들의 건강을 위한 재활연계서비스를 추진한다.

달성장복은 2월 5일 달성군보건소와 연계해 지역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 유형 및 질병에 따른 한방진료와 전문의 진료, 수지침 치료 서비스를 실시했다.

달성장복은 지난해 한방진료 서비스에 대한 지역 장애인들의 호응에 힘입어 올해 치매예방교육, 영양균형섭취교육, 일상운동

지도 등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달성장복 정우선 관장은 “앞으로 장애인 재활연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역 장애인들의 건강유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대상 한방진료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성남장복, 저소득 장애인에 쌀 전달

설 앞두고 포스코ICT가 쌀 170포대 기부

성남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상구, 이하 성남장복)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성남지역 저소득 장애인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했다.

성남장복은 포스코ICT의 후원으로 1월 22일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열고 장애인 가정에 쌀 170포대를 전달했다.

이날 포스코ICT 임직원들은 성남장복 임직원들과 함께 직접 쌀 전달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포스코ICT 조봉래 대표는 “앞



성남장복 박상구 관장이 포스코ICT로부터 쌀 후원 증서를 전달받고 있다.

으로도 소외된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는 나눔 행사에 대한 지원

괴산지역 장애인들의 화합의 장

초청가수 공연 · 웃놀이대회 등 진행

괴산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정효선, 이하 괴산장복)은 1월 29일 복지관에서 '2014년 화합의 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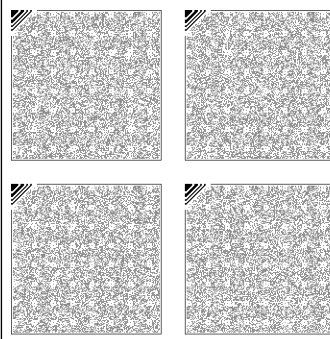
괴산지역 장애인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이날 행사는 초청가수의 공연, 웃놀이대회, 노래자랑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장애인들은 “이번 행사를 통

해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서로 하나 되어 즐길 수 있는 자리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괴산장복 정효선 관장은 “앞으로 장애인을 섬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영천장북, “사랑의 집 지어드려요”

저소득 장애인에 따뜻한 보금자리 마련



‘사랑의 집짓기’ 사업 대상자 입주 및 준공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제근, 이하 영천장북)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가는 저소득 장애인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영천장북은 노숙생활을 하다 겨우 얻은 주거지가 철거 위기에 놓인 한 장애인에게 10평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1월 27일 입주 및 준공식을 가졌다.

영천장북 이제근 관장은 “‘사랑의 집짓기’ 사업 대상자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보금자리 마련에는 홍익건축사 사무소, 특수토목설계, 유린전력 등이 힘을 보탰다.

아산시 장애인 지역시설 이용안내 책자 발간

해피맵(Happy Map)…장애인 삶의 질 향상 기대



아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이창호, 이하 아산장북)이 아산지역 장애인을 위한 지역시설 이용안내책자 ‘해피맵(Happy Map)’을 발간했다.

‘해피맵’은 아산시 상점 및 시설 가운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아산장북이 발간한 장애인 지역시설 이용 안내책자 ‘해피맵(Happy Map)’.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산장북은 ‘해피맵’ 1500부를 주요 관공서에 비치하고 재가 중증장애인들에게도 배포할 계획이다.

‘해피맵’이 필요한 장애인이나 단체는 아산장북 기획운영지원팀(☎041-545-7727)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아산장북은 ‘해피맵’ 발간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체험

김천장북, ‘웃놀이 한마당’ 행사 개최



김천장북 이용 고객들이 웃놀이를 즐기고 있다.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선하, 이하 김천장북)이 정월대보름을 맞아 우리 민족 문화 고유의 우수성을 되새겨 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천장북은 2월 14일 복지관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웃놀이 한마당’을 개최하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김천장북 박선하 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점차 사라져가는 세시풍속을 재현하고 우리 민족 문화 고유의 우수성을 되새겨 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천장북은 앞으로 웃놀이를 비롯한 공연관람, 문화유적답사 등의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월 1회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목포장북,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실시

‘다드림(多Dream)’ 프로그램 운영

목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조문호, 이하 목포장북)이 오는 12월까지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드림(多Dream)’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목 포 장 북 은 ‘ 다 드 림 (多

Dream)’ 프로그램을 통해 수학교육, 정보화교육, 수어교육, 자기효능감증진교육 등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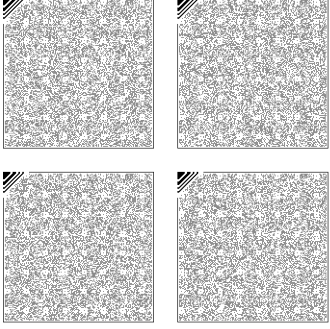
또한 비즈공예, 가죽공예, 네일아트, 양말인형공예, 한지공예, 라이스클레이, 지역사회 탐방 등 문화교실도 운영한다.

‘다드림(多Dream)’ 프로그램 등록 및 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문경장북(☎061-285-2811)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목포장북의 ‘다드림(多Dream)’ 프로그램은 전라남도 와 목포시청이 지원한다.

Voiceye Saeboram News

소리로 읽는 새보람



남부장복, 장애인 탁구 · 론볼 교실 참가자 모집

전문 강사 지도 아래 이론 및 실기 교육 진행



남부장복 론볼교실 수강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충청남도남부장재인종합복지관(관장 임대혁, 이하 남부장복)이 장애인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남부장복은 장애인 건강증진과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탁구 및 론볼 교실을 운영한다고 3월 12일 밝혔다.

탁구 및 론볼 교육은 이론부터 기본자세 · 응용기술 훈련까지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진행된다.

지역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

은 남부장복 사회재활팀(☎ 041-856-7071)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부장복 관계자는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스포츠 활동에 제약이 많은 장애인들에게는 삶의 활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장애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경장복,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 열어

지역 장애인 위해 문경시여성단체협의회가 후원



문경장복이 2월 12일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문경시장재인종합복지관(관장 박종훈, 이하 문경장복)이 2월 12일 지역 장애인을 위해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를 마련했다.

이 행사는 문경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원순)가 지원했다. 문경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1월 ‘쌀 모으

정읍장복,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 시동

수공예 · 천연염색 · 한지공예 강좌 열어

정읍시장재인종합복지관(관장 박종형, 이하 정읍장복)의 올해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읍장복은 여성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 예정인 프로그램의 담당강사와 수강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월 10일 개강식을 가졌다.

정읍장복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수공예, 3월부터 6

월까지 천연염색, 8월부터 11월까지 한지공예 강좌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읍장복 관계자는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이 여성장애인들의 사회성 향상과 전문기술 습득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읍지역 여성장애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 행사’를 실시해 이번 행사 기금을 마련했다.

문경시여성단체협의회 김원순 회장은 “작은 정성으로 지역 장애인들과 온정을 나눠 기쁘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지역 발전에도 기

여할 수 있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에는 문경시 고윤환 시장과 사회복지과 임직원들도 함께 했다.

유성장복, 장애 아동 방과후 교실 운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양한 체험 활동 실시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석연, 이하 유성장복)이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방과후 교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제로 학기

중에는 오후 2시부터 6시, 방학 중에는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집단미술치료, 댄스스포츠, 요가, 동화구연,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한편 유성장복 관계자는 “장애 아동들이 방과후 교실을 통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장복이 주 5일 장애 아동 방과후 교실을 운영한다.



‘연세 Barrier-Free 글로벌 탐방기’

기적처럼 느껴진 미국의 장애인 접근성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2학년
한 혁규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7일까지 연세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새움터 주관으로 ‘연세 Barrier-Free 글로벌 탐방단’ 일정이 진행되었다.

장애학생 9명, 비장애학생 4명 등 총 13명의 학생들은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의 대학, 기업 등을 방문해 다양한 장애인 지원 제도를 보고 돌아왔다.

각자 목표도 다양했고 다른 것을 느끼고 돌아왔지만 사업

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통된 주제는 장애인을 위해 사회에 놓여있는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고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의 의식적 장벽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시도, 즉 배리어프리(Barrier-Free)였다.

휠체어를 타는 나에게 이번 탐방의 기회는 특별했다. 휠체어를 타게 된 이후 나는 항공기를 한 번도 타보지 않았으며 해외로 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다.

일상의 많은 부분을 부모님께 의존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걱정과 달리 나는 무사히 탐방을 마쳤고 이번 탐방 기간 동안 느낀 점을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미국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바로 ‘장애인 접근성’이다. 한국에서는 휠체어를 타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시설물이 그리 많지 않다. 진입로가 계단으로 되어 있어 들어갈 수 없는 건물도 있고 입구의 턱이 높아 진

입이 불가능한 식당도 많다.

경사도가 있더라도 너무 급한 경사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도 버튼이 너무 높이 위치해 있어 누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매년 미리 연락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미국에서는 휠체어를 타고 진입할 수 없는 곳이 단 한곳도 없었다. 모든 식당과 가게에 이동을 막는 턱이

전혀 없었다.

가는 곳마다 너무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 탐방을 도와주셨던 가이드에게 휠체어 접근성을 미리 조사했는지 물어봤다. 그러나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미국에는 장애로 인해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인식이 확산되어 있고 법적으로도 모든 건물에 장애인의 진입이 가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번 탐방 기간

동안 방문한 대학, 기업의 장애인 접근성은 높았다. 대학의 경우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캠퍼스(UC Berkeley)’는 모든 출입문이 버튼을 누르면 열리는 자동문이었고 폭도 넓어 움직임에 불편함이 없었다.

세계 최초로 생긴 ‘버클리 자립생활지원센터(CIL Berkeley)’에서는 발 위치에 놓인 엘리베이터 버튼, 1층과 2층을 잇는 원형 경사로, 지하로 연결되어 있는 지하철역이 눈에 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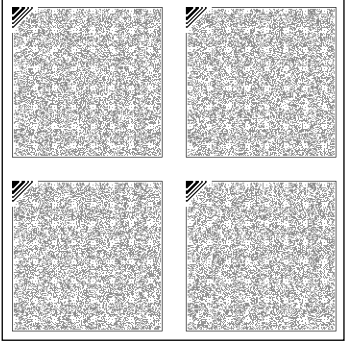


벽에 붙어 있는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열리는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의 강의실 출입문.



발로 누를 수 있도록 설치된 ‘버클리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엘리베이터 버튼.

소리로 읽는 새보람



1층과 2층을 누구나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한 '버클리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원형 경사로.

근성 문제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미국 사회의 모습이 나에게 기적 같이 느껴졌다.

미국에 일어난 이 기적은 1990년대 도입된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기초하고 있다.

미국의 ADA는 크게 장애인 고용, 이동, 교통, 통신시설 등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접근성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유사하지만 훨씬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강력한 법 집행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 휠체어가 접근 불가능한 곳이 있다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규제를 받는다고 한다.

비록 탐방을 함께한 단원 중 시각장애가 있는 친구는 미국에 머무는 동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보도블록 설치가 잘 되어 있지 않아 불편을 겪기도 했지만 미국은 ADA를 통해 적어도 휠체어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했다.

ADA가 체계화될 수 있었던 것은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누군가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결국 의식적 측면에 있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나와 같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 학생을 만날 수 있었다.

미국에서 접근성에 불편을 느끼지 못했던 나는 미국의 장애 학생들은 한국의 장애 학생들보다 활발하게 외부활동을 할 것이라 생각했다.

이에 학교 밖으로 나가서 시간을 보낼 때 어떤 이동수단을 이용하는지 물었다. 하지만 그 친구는 학교 밖으로 잘 나가지 않는다는 의외의 답변을 했다.

시에서 운영하는 휠체어를 위한 차량이 있긴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부모님과 함께할 때가 아니면 학교에만 머문다는 것이다.

이 친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가 바뀌지 않으면 장애인의 삶은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다.

우리는 왜 우리 앞에 높은 장벽들을 깨나가야 하는 걸까? 답은 간단하다. 사회에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기 때문이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지속적으로 사회의 일원이 되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시도 속에서 미국의 긍정적 변화를 우리나라로 끌어올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스스로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고 개선하는 것,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시도를 통해 우리는 장애에 대한 문제와 정확하게 마주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로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노스리지캠퍼스' 장애학생 시험실에 있는 음성계산기, 높이 조절 테이블 등 다양한 보조공학 기구들.



'캘리포니아주립도서관'에 비치된 책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칩과 이를 들을 수 있는 기계.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노스리지캠퍼스(CSUN)'에서는 장애학생들의 재활을 돕기 위한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장애학생지원센터에는 음성계산기, 높이 조절 테이블 등 다양한 보조공학기구들을 갖춘 장애학생 시험실도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스탠포드(Stanford)'는 장애학생들의 이동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듯 했다. 장애학생의 이동보조 수단으로 골프카트를 사용하고 있었고 학교 내 동아리는 행사 진행시 장애학생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야만 행사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캘리포니아주립도서관'은 점자책, 책의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칩과 이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기계 등을 비치해 필요한 회원들에게 대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장애인 정보 접근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우리가 방문했던 기업 IBM에는 건물 내에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휠체어 규격이 맞지 않아 감히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즉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며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직원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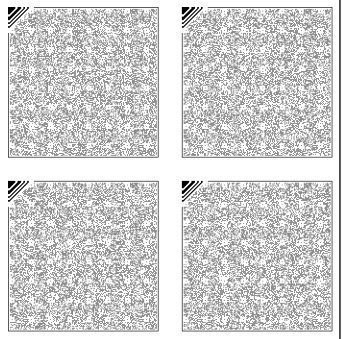
미국 국민들의 의식적 측면이 접근성 개선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면담 도중 장애를 또 하나의 능력으로 생각한다는 그의 말에서 진정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에 대한 접근



'스탠포드'가 장애학생들의 이동보조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골프카트.

소리로 읽는 새보람



「제26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글짓기 우수상 수상 수기

‘멍 에’

■ 김무룡 (지체2급, 62세)



일일 텐데 이 무슨 황당한 일인가 싶었다.

둔한 머리를 억지로 굴려 그녀가 보인 행태의 원인을 분석하려 애썼다.

아! 그 순간 나는 절망에 가까운 참담한 심정이 되고 말았다. 그 여자는 나를 장애를 빌미로 구걸하러 온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뜻밖의 봉변에 자존심이 상한 나는 되돌아 나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 처지도 못되었다. 이미 식당 안에 발을 들여 놓은 터였고 식사 중이던 서너 명의 시선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수 없이 무안을 당한 붉어진 얼굴로 “국밥 됩니까?”하고 물을 수 밖에 없었다.

그제야 그 여자는 활짝 얼굴을 펴면서 “난 또 누구시라고예. 어서 오이소. 이쪽으로 앉으이소.”하며 반색을 했다.

음식을 받아 들자 문득 아주 오래된 흑백영화 ‘자이언트’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텍사스의 거부(巨富)로 통하는 주인공 ‘빅’이 운명적으로 얻게 된 어린 혼혈 손자와 온 가족이 함께 한 식당에 들렀을 때였다.

그때 식당 주인은 백인 이외의 손님은 받을 수 없다며 단호히 거절한다.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심한 굴욕을 당한 ‘빅’은 정정당당한 결투를 벌인다.

‘빅’의 주먹이 때때로 통쾌하게 작열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무수한 주먹세례와 발길질을 당한 ‘빅’은 결국 바닥에 쪽 뺏고 만다.

의기양양해진 주인은 손의 먼지를 툭툭 털면서 식당에 걸려있던 팻말 하나를 떼어 축 늘어진 ‘빅’에게 던진다. 거기에는 “주인도 손님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적혀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만신창이가 된 ‘빅’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그날의 무용담으로 행복한 웃음꽃을 피운다. 그들은 그 결투에서 불의와 맞서

는 한 가장(家長)의 진정한 용기를 보았기 때문이다.

먹고 있던 돼지국밥의 위력 때문인지, 떠오른 영화 장면 때문인지 은근히 용기가 솟아 곱지 않은 시선을 주 인아쭈마 쪽으로 보냈다. 그러나 이내 시선을 거두고는 먹는 일에 열중하는 시늉을 했다.

펄펄 끓는 물에서 갓 건져낸 돼지고기 덩어리를 씹먹 씹먹 씹고 있는 그녀의 손이 마치 힘센 장사의 그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난처한 경우뿐이 아니다. 비슷한 일을 자주 경험한 탓인지 아니면 순전히 열등감의 발로 때문인지는 모르겠다. 좋은 일이 생긴 행복한 상황에서조차 나는 적절한 처신을 못하고 찢찢매는 경우도 종종 있다.

아주 오래전 일이다. 팔애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동화 구연 대회가 있는 날이었다. 아내가 무슨 바쁜 일로 참석하지 못한다기에 퇴근하자마자 서둘러 찾아갔다.

칠월의 무더위에도 꼬맹이들과 학부모들로 꽉 찬 비좁은 교실에서는 연방 박수소리와 웃음소리가 터지고 있었다.

등이 굽어 키가 작은 나는 맨 뒤편의 빈 책상 위에 걸터앉아 목을 빼고서 앞사람들의 목과 어깨 사이로 겨우 무대를 볼 수 있었다. 어떤 녀석은 암기한 동화의 내용을 잊어 한참 뜸을 들여 지켜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더니 끝내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려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드디어 우리 집 녀석의 차례가 되었다. 집에서 연습할 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막상 무대의 마이크 앞에 선 모습을 보니 뭔지 모를 짝한 감정이 일었다. 녀석은 기특하게도 당당한 모습에 포랑포랑한 목소리로 갖가지 표정에 몸짓까지 해가며 암송한 내용을 실수 없이 잘해냈다.

그럭저럭 모든 순서가 끝나고 시상식 때였다. 단상 위에서 빛나던 트로피들을 우수, 최우수상에 호명되는 아이들이 거의 다 타 가는데 녀석의 이

름은 불리지 않았다.

아이의 실망한 모습을 생각하니 괜히 미안한 생각이 들어 슬그머니 교실 뒷문으로 빠져나가는데 “마지막으로 대상은…”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는 이내 “아빠! 아빠!” 하며 나를 찾는 녀석의 환희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갈등이 일었다. 불편한 몸으로 남 앞에 나서기가 싫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는 피하거나 참석해도 뒤편 한 모퉁이에서 서성이다 남몰래 사라지는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교실 문턱 안팎에 하나씩 걸친 발을 어느 쪽으로 놓아야 할지 난처했다.

하는 수 없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다 들킨 사람처럼 달아 오른 얼굴에 뒤통수를 긁적이며 아이의 손에 이끌려 무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자랑스러운 딸아이의 아비로서 체통을 유지하려 식은땀이 흐르는 얼굴에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단상에 올랐다. 여기저기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아이와 함께 대상 트로피를 수상하고는 부리나케 집으로 달려왔다.

그리고는 축하 겸 긴장 해소를 위해 트로피에 맥주를 가득 따르고 ‘위하여!’를 한 번 크게 외친 후 단숨에 마셔버렸던 것이다.

현명한 사람의 손에선 독이 약으로 변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손에서는 약조차 독으로 변하고 만다. 독이 독으로 남는 것은 그것을 약으로 만드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길을 가다 앞에 나타난 돌을 두고 어떤 이는 걸림돌이라 하고 어떤 이는 디딤돌이라 한다.

나에게 지워진 이 멍에가 어찌할 수 없는 ‘숙명’이라면 그 누르는 무게만큼 다리에 근력을 증가시키는 운동구로 삼아야 할 테이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의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결과적 상황인 ‘운명’이라면 나 스스로의 힘으로 기어코 바꾸어 놓고 싶다.

세상구경 끝나는 날 삶의 여한을 이야기할 때, 나에게 주어진 멍에를 두고 결코 변명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다.

가끔 난처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 사람들은 이럴 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듯하다. 그러나 나는 이순(耳順)에 가까운 지금까지도 적절한 임기응변을 모르는 딱한 위인으로 살아간다. 마음의 수양이 부족한 탓일 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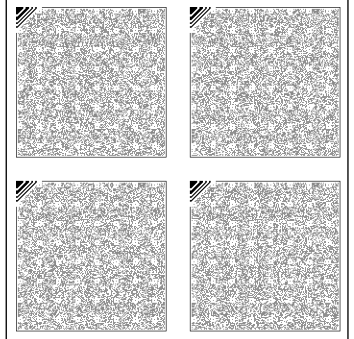
친구의 병문안을 다녀오는 길이었다. 이른 아침, 고속버스를 타고 좀 먼 길을 갔다 온 탓에 심한 시장기가 느껴졌다.

평소 입이 짧은 나는 구미를 당기는 음식이 없을까 하고 정류장 부근의 식당가를 두리번거리다 ‘흑돼지 국밥 전문’이라는 큰 간판을 발견했다.

반가운 마음에 냉큼 그 식당 문을 밀고 들어섰다. 그런데 안주인인 듯한 여자가 반히 쳐다보며 “와요? 와 카는데예? 장사도 안 돼 죽겠는데…” 하는 것이 아닌가.

사뭇 신경질적이고 가시 돌친 말투였다. 난감했다. 식당에 손님이 들어오는 것은 식사하기 위함이 당연한

소리로 읽는 새보람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지키세요!

습도유지 · 개인위생 · 수분보충 중요 면역력 증진에 좋은 음식섭취도 도움

최근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로 알루미늄, 카드뮴, 납 등 중금속이 포함된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빈번하게 날아들면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미세먼지는 몸속에서 정화·배출되지 못하고 기관지나 폐에 쌓여 비염, 기관지염, 천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혈관을 타고 다른 장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기도 했다.

최대한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한동안 우리나라에 미세먼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세먼지 대처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심국제병원 2내과 김연경 과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미세먼지는 물론 박테리아, 세균 등은 호흡기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오는



데 호흡기가 건조해지면 미세먼지를 배출시킬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호흡기의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호흡기의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코 점막 스프레이를 뿌려주거나 흐르는 물에 코를 자주 세척해주는 것이 좋다.

또한 목안을 촉촉하게 유지시켜줘야 미세먼지 배출이 용이하므로 물을 자

주 마셔야 한다.

실외활동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일반마스크는 초미세먼지와 같은 작은 입자는 잘 막아주지 못하므로 되도록 황사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외에 보호안경, 모자 등을 착용하면 더욱 좋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 외출 후 꼭 손을 씻고 목욕을 통해 개인위생

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며 양치질을 할 때 칫솔을 이용해 입안까지 깨끗하게 닦아 줘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빨래를 실내에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틀어 실내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 섭취도 도움이 된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해질 때면 돼지고기를 먹어야 좋다는 속설이 있으나 돼지고기 지방이 미세먼지에 미치는 역할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진 바가 없다.

오히려 지방함량이 높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지용성 유해물질의 체내 흡수율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따라서 돼지고기 보다는 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해주고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배, 마늘, 해조류, 녹차, 홍삼 등을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50대 이상 담석증 환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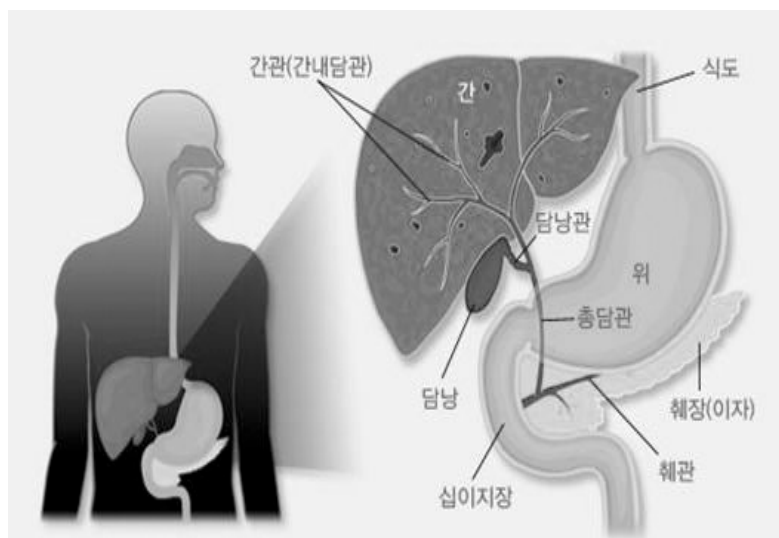
잘못된 식습관 · 지나친 체중 변화가 주요 원인

50대 이상을 중심으로 담석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담석증 환자가 2007년 8만8315명에서 2012년 12만5364명으로 연평균 7.3%씩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12년 기준으로 70대 이상이 25.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50대(22.8%), 60대(20.7%) 순으로 50대 이상 환자가 전체 환자의 68.8%를 차지했다.

담석증은 간, 담도, 담낭 안에 돌이 생기는 질환으로 위치에 따라 간내담석, 담도담석, 담낭담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 증상은 통증이며 흔히 오심과 구토를 동반한다. 발열이나 오한

등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 담석증이 나타나는 원인은 다양하

나 저단백, 고콜레스테롤, 단순 당섭취 등의 잘못된 식습관과 지나친 체중 감소 또는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50대 이상 진료환자가 많은 이유는 담석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콜레스테롤 포화지수가 대부분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증상이 없는 담석증은 시간이 지남에 저절로 좋아져 그냥 놔둬도 상관 없지만 통증이 동반되는 담석증의 경우 담낭절제술과 같은 근본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특히 간내담석은 수술을 해야 하며 담도담석은 내시경으로 꺼내보고 안 되면 수술을 시행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배상준 외과 교수는 “담석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콜레스테롤 음식을 섭취하는 등 고콜레스테롤 음식의 양을 줄이는 식습관이 필요하며 꾸준한 체중조절을 통해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문화누리카드 신청하세요!

문화 · 여행 · 스포츠 관람 이용권 통합



문화누리카드 발급 홈페이지 캡처.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시작됐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존의 문화 이용권에 여행과 스포츠 관람 이용권을 통합한 것으로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문화누리카드로는 공연, 영화, 전시, 스포츠 경기 등을 관람할 수 있으며 도서, 음반 등 문화상품도 구입할 수 있다. 이밖에도 여행, 교통, 숙박, 관광시설 입장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연간 10만원 한도의 문화누리카드가 세대 당 1매 발급되며 청소년에게는 연간 5만원 한도로 개인당 1매, 세대 내 최대 5명까

지 발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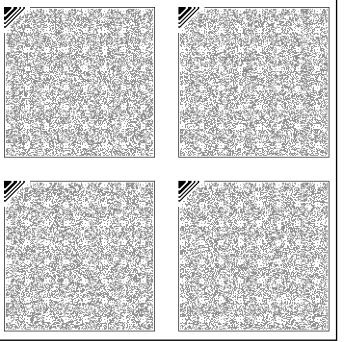
세대카드와 청소년카드를 필요에 따라 1매로 합산해 사용할 수도 있다.

카드 내 소액 잔액이 발생해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개인 비용을 카드당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카드는 발급 2시간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

소리로 읽는 새보람



문화누리카드사업 주관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통합문화이용권 운영으로 올해 144만명의 저소득층 대상자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문화누리카드 사업의 지속적 확대를 소외계층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지원 인식개선 문화제’ 작품 공모

3월 31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로 접수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중앙회장 조향현, 이하 장고협)가 3월 31일까지 ‘장애인 고용지원 인식개선 문화제’의 부문별 작품을 공모한다.

작품 공모는 ‘장애인 고용과 장애인 인식개선’을 주제로 만 15세 이상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장애인은 운문·산문·사진·컴퓨터그래픽·창작만화, 비장애인은 광고 부문에 참여할 수 있다.

작품 공모 희망자는 장고협 홈페이지(www.kesad.or.kr)에서 응모신청서 및 기타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작품과 함께 장고협으로 우편, 이메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작품은 1인당 5점까지 제출할 수 있다.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금상 200만원, 은상 100만원, 동상 50만원, 가작 20만원, 입선 5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최종 입상자는 5월 초에 발표되며 시상식은 6월 초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장고협 홈페이지(www.kesad.or.kr)를 참고하거나 전화(☎02-754-775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장고협은 지난 2000년부터 개최해오던 ‘전국 장애인 근로자 문화제’를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지원 인식개선 문화제’로 명칭을 변경,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에 더욱 힘써나간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고용지원 인식개선 문화제 작품 현상 공모전 포스터.

온라인에서는 불가능한 영화관 장애인 할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관계기관에 정책건의

현장에서만 가능한 영화관 장애인 할인 혜택을 온라인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계단체 실무 책임자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영화관 티켓 온라인 예매시 장애인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상영관협회, 주요 영화관 본사에 정책건의했다고 3월 7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은 영화관에서 장애급수에 따라 4000~5000원의 관람료 할인혜택을 받고 있다. 1~3급 장애인은 동반자 1인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티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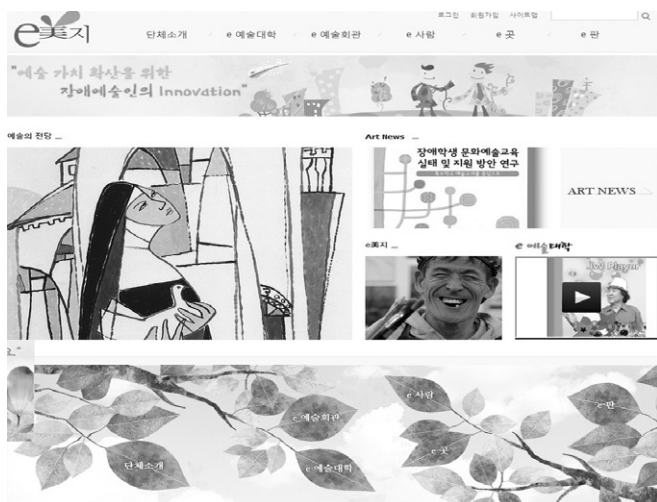
을 예매할 경우에는 장애인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애인이 직접 현장에서 티켓을 발권해야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극장 측은 온라인 예약시 가족이나 지인이 장애인 할인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고 장애인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려 해도 비용이 많이 들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공립극장, 공연장, 공연, 철도 및 항공사 등은 인터넷을 통해 장애인 할인 여부를 선택하고 현장에서 장애인복지카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장애인문화예술센터 ‘e美지’

장애인문화예술 통해 감성적 소통 기대



온라인 장애인문화예술센터 ‘e美지’ 메인화면.

온라인 장애인문화예술센터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는 장애인문화예술의 홍보와 마케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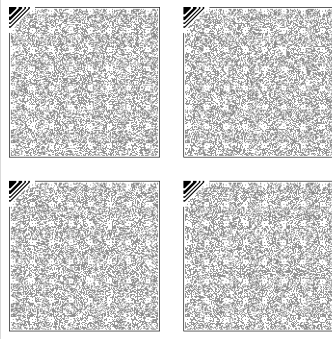
채널 역할을 하게 될 ‘e美지(www.emiji.net)’가 구축, 개통됐다고 2월 25일 밝혔다.

이는 장애인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e美지’는 장애인문화예술전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이다.

‘e美지’는 동영상 예술 강의를 실시하는 ‘e예술대학’, 장애인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담은 ‘e예술회관’, 장애예술인을 소개하는 ‘e사람’, 홍보와 마케팅을 하는 ‘e곳’, 소통과 신인 발굴을 위한 ‘e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대표는 “장애인문화예술의 모든 것이 ‘e美지’에 있다며 장애인문화예술을 통해 우리 사회와 감성적 소통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2014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인천에서…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끝나고 개최

‘2014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올해 하반기 인천에게 열린다.

인천시는 ‘2014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종료된 후 인천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3월 3일 밝혔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전국체육대회’ 개최 도시가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한 다음 연도에 개최하는 것이 관례로 인천시는 지난해 ‘전국체육대회’를 개

최한바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올해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인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관계기관에 ‘2014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반납의사를 밝혔었다.

‘2014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준비 기간이 맞물려 인력, 예산 등에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우

려에서도.

하지만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인천시에 올 6월초 ‘2014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를 요청했다.

이에 인천시는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고 의견을 조율, ‘2014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인천 개최를 최종 확정지었다.

인천시는 ‘2014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종료된 후

개최되는 점을 감안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대회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파견된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경기종목 일부 조정, 다른 시도 경기장 활용, 주요 행사 축소 등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재원 마련 대책으로 국비 추가지원을 요청하고 인천시 추가 경정예산에 필수 사업예산에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한편 인천시 관계자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나면 기존 16개 신설 경기장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과 오는 2016년 말 준공되는 장애인체육관과 함께 인천시가 장애인 생활체육 시설의 메카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11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성료

경기도 종합우승 차지…최보규 선수 MVP 선정



대회 종합 1, 2, 3위를 차지한 경기도, 인천, 강원도 대표가 시상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원도와 경기도 일원에서 펼쳐진 ‘제11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2월 14일 평창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린 폐막식을 끝으로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16개 시·도 대

표선수 344명이 참가한 가운데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휠체어컬링, 빙상, 아이스슬레지하키 경기로 치러졌다.

그 결과 경기도가 1만4665점을 획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종합우승 자리에 올라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2위는 인천광역시(1만4200점), 3위는 강원도(1만2631점)가 차지했다.

MVP의 영광은 남자 크로스컨트리의 희망 최보규(서울, 시각장애) 선수에게 돌아갔다. 최 선수는 2.5km에 이어 5km에서도 우승하며 2관왕의 쾌거를 이뤘다.

이밖에도 지도자상은 알파인스키 김진영(울산) 감독과 휠체어컬링 김우진(경남) 감독, 신인선수상은 알파인스키 김찬우(서울) 선수가 받았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빙상의 현인아(지적장애, 인천) 선수가 500m, 1000m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좋은 활약을 펼쳤다.

차지했고 독일(금9, 은5, 동1), 캐나다(금7, 은2, 동7), 우크라이나(금5, 은9, 동11), 프랑스(금5, 은3, 동4)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 일본, 중국, 이란,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대회에 참가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금3, 은1, 동2)이 7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한편 대회 폐막식에서는 2018년 동계장애인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을 알리는 무대가 펼쳐졌으며 이석래 평창군수가 소치시장으로부터 패럴림픽기를 건네받았다.

광주시 장애인체육센터 기공식 열려

장애인 체육 상담·지도·관리…내년 개관



2월 10일 열린 광주시 장애인체육센터 기공식 모습.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가 2월 10일 광주 지역 장애인들의 숙원인 장애인체육센터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염주체육관 내 사업 예정부지에서 열린 기공식에는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해 조호권 시의회의장, 이하은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장애인체육단체 협회장, 선수, 건설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장애인체육센터 건립을 통해 보다 질 높은 장애인 체육 정책을 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최초 장애인 전문체육센터인 장애인체육센터 건립은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시범사업으로 국비 50억원과 시비 26억원이 반영, 총사업비 76억원이 투입된다.

연면적 3732.75㎡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지는 장애인체육센터에는 다목적체육관과 건강검진·체력측정실, 장애인체육회와 가맹단체 사무실 등이 들어선다.

오는 2015년 2월 공사가 완료되며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훈련장과 장애인 전문 체육 선수들의 훈련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체육 관련 상담, 지도, 관리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장애인 누구나 쉽게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장애인체육센터 기본 계획 단계에서부터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향후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했다”고 밝혔다.

2014 소치장애인동계올림픽 폐막

러시아 종합우승…한국 노메달에 그쳐

3월 8일 개막한 ‘2014 소치장애인동계올림픽’이 17일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에는 45개국의 선수들이 출전해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아이스슬레지하키, 휠체어컬링 등 5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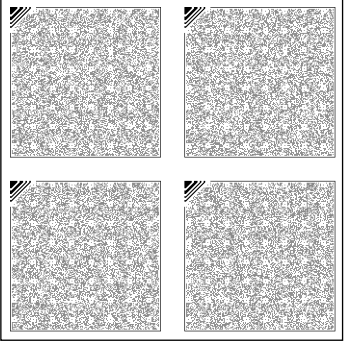
한국은 선수 27명, 임원 30명

등 57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을 꾸려 바이애슬론을 제외한 4개 종목에서 열전을 벌였다.

그러나 기대만큼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며 아쉽게도 노메달에 그쳤다.

이번 대회 종합 우승은 개최국인 러시아(금30, 은27, 동22)가

소리로 읽는 새보람



뉴욕 패션위크 무대에 오른 여성장애인

휠체어 타고 런웨이에...세계인 관심 집중



휠체어를 탄 모델이 세계 4대 컬렉션 중 하나인 뉴욕 패션위크 무대에 올라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화제의 주인공은 장애로 인해 어릴 때부터 휠체어를 타고 생활해 온 다니엘 세이퍼크(35세) 씨이다.

2월 13일 허핑턴포스트에 따르면 세이퍼크 씨는 뉴욕 패션위크 첫째 날 디자이너 캐리 해머의 의상을 입고 런웨이에 올랐다.

휠체어 타고 뉴욕 패션위크 무대에 오른 다니엘 세이퍼크 씨. <사진: Huffingtonpost>

의학심리학자로 성공을 거둔 그녀는 2012년 미인대회에서 휠체어 뉴욕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녀는 패션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지만 항상 뭔가 부족함을 느껴왔다. 장애인들이 참고할 만한 롤모델이 없었기 때문이다.

세이퍼크 씨는 허핑턴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잡지를 읽고 쇼핑을 하는데 패션 시장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다”며 “장애인 모델이 장애인들에게는 자신감을 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런웨이에 선 느낌에 대해서는 “나는 단지 많은 모델들 중 한 명

이었다”며 “설레면서도 자연스럽게 자신감 있었다”고 밝혔다.

디자이너 캐리 해머는 세이퍼크 씨를 패션쇼 무대에 세운 이유에 대해 “이번 시즌에는 런웨이 모델이 아닌 톨모델을 캐스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이퍼크 씨는 현재 장애 여성들의 매력을 사진에 담아내는 ‘로뷰티 프로젝트 (Raw Beauty Project)’에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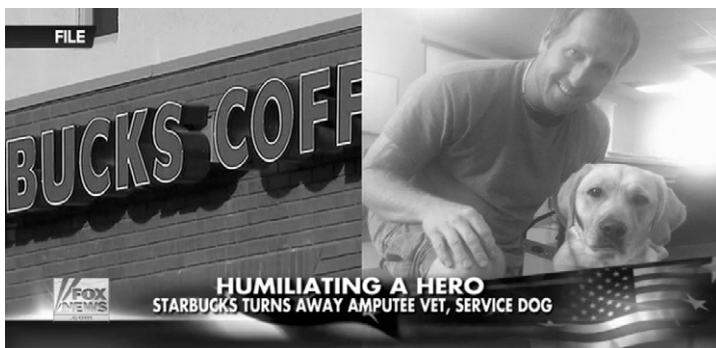
이 프로젝트는 오는 봄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며 미국 맨해튼 갤러리에도 전시될 예정이다.

미국 커피전문점, 지체장애인 도우미견 출입 저지

도우미견과 함께 미국의 커피전문점을 찾은 장애인이 출입을 저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 뉴스는 2009년 이라크전에 참전했다 부상을 당한 후 골육종이 발견돼 왼쪽 다리를 절단한 안시 베어 씨가 그의 도우미견인 버베나와 텍사스에 소재한 스타벅스에서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고 2월 9일 보도했다.

안시 베어 씨가 버베나와 스타벅스로 들어가려는 순간 한 직원이 다가와 버베나를 데리고 매장



미국 텍사스 소재 스타벅스에서 출입을 저지당한 안시 베어 씨와 그의 도우미견. <사진:Fox News>

으로 들어갈 수 없다며 문을 막아

안시 베어 씨는 그를 저지한 스타벅스 직원에게 버베나는 그의

도우미견이라고 설명했지만 그 직원은 안시 베어 씨를 향해 시각 장애인도 아닌데 왜 혼자 들어갈 수 없다고 되물었다.

안시 베어 씨가 긴 바지를 입고 있어 다리가 불편한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안시 베어 씨는 다른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결국 그의 출입을 저지했던 직원에게 사과를 받았다.

안시 베어 씨는 “스타벅스에 나쁜 감정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지

만 도우미견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 항상 눈에 보이는 장애인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스타벅스의 대변인 로렐 하퍼는 성명을 통해 “스타벅스는 항상 서비스 동물을 환영한다”며 “이 고객의 경험은 일부 직원의 잘못된 조치로 우리는 모든 고객들에게 친근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고객에게 사과를 했고 다시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란다”며 “매장 파트너와 이번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이번 일을 미래를 위한 교육 기회로 삼았다”고 밝혔다.

英, 과체중 운전자에게 장애인 주차허가증을?

걷기 힘든 비만 운전자에게 블루배지 발급

영국이 과체중 운전자에게 장애인 주차허가증을 발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1월 20일 텔레그래프, 데일리 메일 등은 영국 월솔시 등 일부 지역 시의회에서 50m 이상 걷기 힘든 과체중 운전자에게 장애인 주차허가증인 ‘블루배지(blue badge)’를 발급했다고 보도했다.

‘블루배지’를 부착한 차량은

영국 전역 어디에서나 무료 주차가 가능하며 영국 교통부는 걸을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걷는데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2050년 영국인의 절반이 비만이 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면서 과체중 운전자에게까지 장애인 주차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우려 섞

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국 국가비만포럼의 탐 프라이 씨는 “현재 200만여명의 영국인이 비만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장애인 주차 혜택을 줘야 하나”며 “과체중인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면 우리 사회의 비만 문제는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월솔시의회 관계자 크리스 토워는 “‘블루배지’ 신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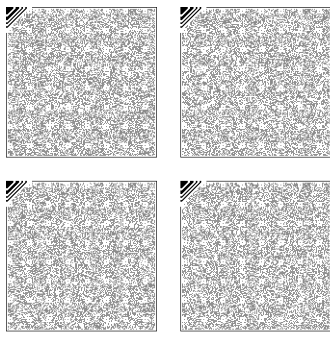


영국이 50m 이상 걷기 힘든 과체중 운전자에게 장애인 주차허가증을 발급하고 있다. <사진:The Telegraph>

에 대한 모든 평가는 독립적인 평가자에 의해 지난 2012년 4월 1일 정부의 입법안에 맞게 이루어

어졌다”며 “신청자들의 건강상태가 아닌 이동성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그 편의의 예로는 자막, 수화, 점자, 보청기기, 화면읽기, 음성 서비스 등이 있으며 법은 편의 제공 주체별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시점을 단계적으로 달리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국의 공공기관, 병원, 학교, 복지시설 등에 대해 안내서비스 및 수화통역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전담도우미를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전국 175개 수화통역센터(2009년 기준)를 통해 전화기를 이용한 수화통역 중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법은 재화와 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게 비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의를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제15조) 재화와 용역의 제공에 쓰이는 각종 기기(예를 들면 현금인출기)에 대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국내에는 1104대의 장애인용 CD·ATM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은행들은 2013년까지 1015억원을 투입해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CD·ATM기 5000여대를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은행 영업점당 0.86대에 해당).

또한 은행들은 향후 3년간 215억원을 투입해 장애인이 쉽게 은행 홈페이지에 접근해 금융 상품 조회 및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이 상기 접근성을 제공받지 못할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의시설중앙지원센터

편의증진국장
송현근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 접근성 II

지난 호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에 접근성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 장애인권리협약 접근성의 국내 이행과 모니터링에 대한 국가보고서의 내용을 발췌해 기고하고자 한다.

장애인권리협약의 성안과정에 적극 참여하였던 대한민국은 2009년 1월 10일 동 협약을 국내 발효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입법을 포함해 여러 조치들을 취해 왔다.

대한민국은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제35조 제1항에 의거해 최초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번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보고서 작성 지침을 참조해 작성되었다.

대한민국은 장애인권리협약이 발효되기 이전에 이미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과 법정부 차원의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장애인정책을 발전시켜 왔고 이는 이 협약의 정신에 부합되는 것이었다.

1997년에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건축물, 도로 및 설비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였고 이 법률 중 도로 및 교통수단, 여객시설에 관한 사항은 분리되어 2005년에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통해 장애인이 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여러 영역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먼저 ‘건축기본법’은 정부로 하여금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이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장애인의 이용을 배려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제7조).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시설주로 하여금 건물, 주택, 학교, 의료시설 및 직장 등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일정한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7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이 건축물에 접근하고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일정한 기준에 맞게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9조).

그런한 편의시설의 예로는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복도·계단,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용 승강기·경사로·

화장실,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등이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매년 분야별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시행규칙 제4조).

2008년 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법적 의무 대비 실제 설치율은 83.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76.6%, 공원은 66.0%였으며 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한 비율 중 적정 설치율은 각각 59.7%, 69.1%, 57.9%였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안하여 ‘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10-2014)’에서 편의시설 설치율을 88%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편의시설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가 제출된 이후인 2013년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가 있었는데 그 설치현황은 2008년 보다 조금 나아진 면은 있지만 5년간의 성과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미약한 수준으로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이다.

전체 설치율은 2008년 77.8%에서 2013년 78.2%로 0.4% 향상되는데 불과하다. 심지어 건축물 내부에서 가장 이용 빈도가 높고

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원의 건축 시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적합성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건축기본법’을 개정하여 신축 건물에 대한 편의시설물 설치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정부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을 높이하고자 2009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19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그 외 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시설 종류 및 현황은 제20조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정부는 교통시설물, 교통수단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도모하고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2008년부터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

『2008년 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 대상시설별 설치현황 (단위 : 개, %)

대상시설별	2003년 조사			2008년 조사				증감
	법정의무 편의시설수 (a)	실제 설치수 (b)	설치율 (b/a)	법정의무 편의시설수 (A)	실제 설치수 (B)	설치율 (B/A)	적정 설치율	
도로	85,499	185,619	89.0	-	-	-	-	-
공동주택	138,533	91,484	66.0	563,445	468,813	83.2	59.7	17.2
공공건물및 공중이용시설	538,453	399,854	74.3	3,160,937	2,422,520	76.6	69.1	2.3
공원	4,652	8,665	59.1	36,410	24,036	66.0	57.9	6.9
계	877,257	665,293	75.8	3,760,792	2,915,369	77.5	62.2	-

* 출처: 보건복지부(2010)

『2013년 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

편의 시설 종류	2008년도				2013년도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 및 설치율 (%)	적정설치수 및 적정 설치율(%)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 및 설치율 (%)	적정설치수 및 적정 설치율(%)	
매개 시설	1,342,840	1,035,594 77.1%	754,353 56.2%		1,455,010	1,202,226 82.6%	1,063,331 73.1%	
내부 시설	1,406,739	1,231,281 87.5%	959,834 68.2%		1,030,043	969,146 94.1%	867,051 84.2%	
위생 시설	512,965	286,607 55.9%	183,238 35.7%		808,790	414,059 51.2%	336,763 41.6%	
안내 시설	28,994	14,350 49.5%	7,498 25.9%		77,309	43,077 55.7%	35,019 45.3%	
기타 시설	79,394	54,811 69.0%	38,173 48.1%		115,273	97,619 84.7%	89,304 77.5%	
계	3,370,932	2,622,643 77.8%	1,943,096 57.6%		3,486,425	2,726,127 78.2%	2,391,468 68.6%	

* 출처: 보건복지부(2013)

시설주가 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지도·감독하는 시설 주관기관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의 설치나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25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제11조, 제12조).

정부는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05-2009)’에서 편의시설 설치율 85%를 목표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7.5% 밖에 달성하지 못한 점과 법적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편의시설 비율이 55.8%인 점을 감

중요도가 높은 위생시설의 경우에는 2008년도 55.9%에서 2013년도 51.2%로 4% 이상 설치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법적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비율을 나타내는 적정 설치율은 2008년도 보다 10%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그동안 적정설치에 대한 교육과 홍보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건축허가시 도면검토와 건물 완공 후 사용 승인시에 검토된 도면대로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는지 검토하는 기술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

수단, 구역, 도시 등이 장애인이 접근·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건축될 경우 이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제17조의2).

정부는 2009년을 기준으로 총 22개의 도로 및 건축물에 이와 관련한 인증을 했다. 참고로 2012년 말을 기준으로 예비인증과 본 인증을 합하여 188개의 인증을 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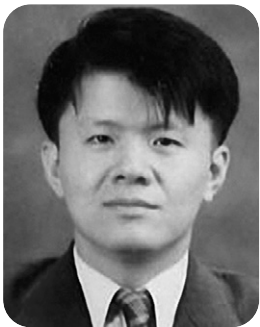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법인·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전자 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20조, 제21조).

노동상담

조호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장)

업무상 재해, 얼마나 아세요?

업무연관성이 가장 중요한 핵심



산업재해는 작업환경이나 작업행동 등 업무상 발생하는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말하며 산업혁명 이후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을 근로자 측에서 보면 근로자의 피로, 근로자의 작업상의 부주의나 실수, 근로자의 작업상의 숙련미달 등을 들 수 있으며 사용자 측에서 보면 주로 산업재해에 대한 안전 대책이나 예방대책의 미비·

부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얼마 전 전화 상담을 했던 지체5급 장애인인 한 모씨는 회사 회식 후 2차로 간 노래방 계단을 내려가다 만취한 동료와 부딪혀 계단(총 8개)에서 굴러 떨어졌고 이 과정에서 앞니 2개가 부러지고 얼굴 등 온몸에 타박상을 입는 큰 부상을 당하게 되었다.

의뢰인은 산재를 신청하고 싶었지만 회사에서는 치료비 50%와 유급휴가(2주)를 제시하면서 산재신청을 해도 불승인 될 거라며 없던 일로 하자고 하였다.

얼떨결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으나 집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해서 자신의 경우 정말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경우였다.

대부분의 장애인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근무하다 다치거나 병이 생기면 무조건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물론 근무 중 다친 경우는 대부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회사의 회식과정에서 벌어진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연관성’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여기서 ‘업무상의 사유’는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0.5.20. 2010.6.4. 2012.12.18.〉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아야 한다.

판례에 의하면 사용자가 참석범위를 정하여 주관한 모임인지, 회식비용 등을 회사에서 부담했는지, 재해가 발생한 당시 장소가 사용자

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장소였는지, 근로자들의 참석여부는 어떠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안타깝지만 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회식비용을 법인카드가 아니라 팀장들이 나누어 부담하였고 직원 참여도도 50%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산재 신청을 해도 승인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민원상담

정연숙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책지원부장)



Q)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인이 되었는데 운전면허를 다시 따야 하나요?

A)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 면허증 갱신기간이 되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핸들조작과 제동장치

조작에 관한 운전능력 측정을 받으면 됩니다. 측정결과에 따라 면허종별이나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Q) 장애인 운전면허증이 따로 있나요?

A) 현재 우리나라는 별도의 장애인면허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장애인과 동일하므로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신체검사, 운전능력측정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등의 과정을 거쳐 합격하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Q)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은 어디서 하나요?

A)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하면 지문인식을 통해 장애인 본인의 탑승 유무를 인증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는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울남부지점(☎02-707-3595), 장애인단체총연합회 북부사업소(☎02-980-5264)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Q)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은 얼마나 되나요?

A)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는 1~3급 중증장애인의 경우 50%, 4~6급 경증장애인은 3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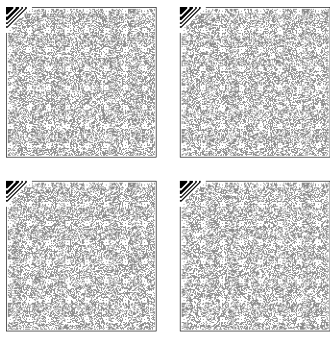
Q) 지체장애 6급은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이 불가한가요?

A) 장애인전용주차장은 휠체어를 탈 정도의 심각한 보행

장애가 있는 이들에게 주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보다 넓은 규모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이 2010년부터 일부 바뀌면서 지체장애 6급은 일반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정도의 심각한 보행상의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체장애 6급이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전문의의 소견서를 첨부해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 발급 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들에게 폭 넓은 취업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취업 알선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들이 취업 후 아무런 문제없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적응지도에도 더욱 힘써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장협, 장애인 취업 경쟁력 강화 나서

‘2014년 제1차 취업 전 교육’ 실시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가 상대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섰다.

지장협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함께 3월 1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증장애인 50여명을 대상으로 ‘2014년 제1차 취업 전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서울고용센터 김영희



서울고용센터 김영희 직업진로 지도팀장의 강의.

직업진로 지도팀장의 ‘이력서

작성법 및 면접 전략’에 대한 강

의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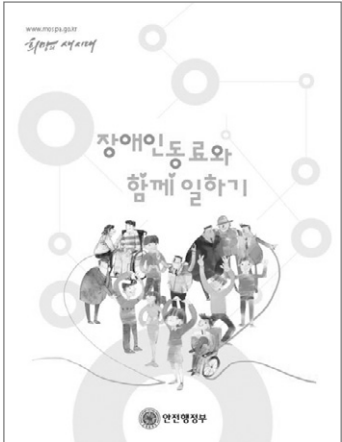
또한 이날은 이력서 증명사진

촬영 서비스와 (주)나라개발시스템, (주)대성에프엠, 삼성전자 판매(주), (주)국제안전시스템, (주)샘표아이에스피, 네트워크앤에스(주) 등 6개 장애인 구인업체의 현장 채용 면접도 실시됐다.

지장협 관계자는 “분기별로 취업 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갈수록 장애인 구인업체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업체를 발굴해 중증장애인

‘장애인 동료와 함께 일하기’ 책자 발간

안전행정부, 장애인 공무원 근무여건 향상 기대



안전행정부가 발간한 ‘장애인 동료와 함께 일하기’ 책자 표지.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가 ‘장애인 동료와 함께 일하기’ 책자를 발간했다고 2월 4일 밝혔다.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은 약 1만

8700여명으로 매년 장애인 공무원 채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안내 자료가 없어 각 기관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비장애인

공무원이 장애인 공무원의 특성을 이해해 서로 배려하며 일할 수 있도록 이번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장애에 대한 기초지식, 장애인 공무원 근무사례, 장애유형별 특성, 비장애인이 알아

두면 좋은 정보, 장애인 차별금지 정책, 인사정책 등이 담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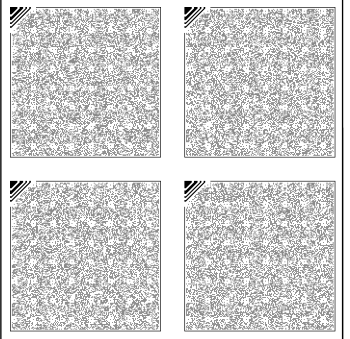
안전행정부는 책자를 각 부처 인사담당자들과 신규 공무원들에게 배부하고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김승호 인사실장은 “이 책자가 공직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보탬이 되고 장애인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취업정보

	업종	업 체 명	근무지	연령	성별	근무내용	급여	보험	연락처
1	미화직	화신지엠에스	서울 양천구	65세	여	미화	월 94만원	4대보험	02-2289-4322
2	생산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서울시 관악구	30세 이하	남	사무	월 102만원	4대보험	02-2289-4321
3	단순직	미래환경	경기도 용인시	연령무관	무관	재활용 분류	월 95만원	4대보험	02-2289-4322
4	미화직	(주)취세택	서울 여의도	65세 이하	여	미화	월 94만원	4대보험	02-2289-4321
5	미화직	(주)나라개발시스템	서울 노원구	65세 이하	여	아파트 미화	월 85만원	4대보험	02-2289-4321
6	주차관리	(주)청인시에스비즈니스글로벌	서울시 강남구	40세 이하	남	운전	월 15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7	단순직	(사)해든	서울시 금천구	55세 이하	남	비데 부품 단순 조립	월 10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8	생산직	청밀	경기도 용인시	무관	무관	농산물 세척 및 포장	월 13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9	단순직	엘림실업	경기도 구리시	40세 이하	남	단순직	월 90만원	4대보험 미가입	02-2289-4321
10	생산직	로알 라이프	서울시 구로구	무관	무관	미싱 보조	월 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11	상담직	바리두스	서울 강남구	40세 이하	여	상담	월 13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12	소독직	나라개발시스템	서울시 전역	60세 이하	무관	소독	월 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13	경비직	(주)국제안전시스템	서울시 강북구	65세 이하	남	경비	월 113만원	4대보험	02-2289-4321
14	경비직	대성에프엠	서울시 구로구	65세 이하	여	경비	월 126만원	4대보험	02-2289-4322
15	생산직	(주)정립전자	서울시 광진구	35세 이하	남	SMT업무/2교대	월 14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16	미화직	대영종합관리	인천시 중구	65세 이하	무관	미화	월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17	단순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영상음향사업소	경기도 오산시	50세 이하	남	배달 및 cctv조립	월 11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18	사무직	(주)서울기업금융센터	서울시 송파구	무관	무관	사무	월 11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19	단순직	꿈꾸다	재택근무	무관	무관	사진선별	건당 5000원	-	02-2289-4322

소리로 읽는 새보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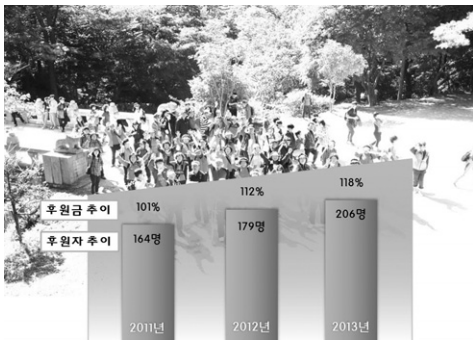


'사랑의 경차' 기증식 모습.

'기부'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원동력

장애인 향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 눈길

문경장북, 후원금으로 저소득 장애인 지원



문경장북 후원자 및 후원금 변화 추이.

장애인을 향한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관심이 눈길을 끌고 있다.

문경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종훈, 이하 문경장북)은 지역 주민들의 후원금이 저소득 장애인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3월 3일 밝혔다.

특히 문경장북 후원자는 2011년 164명, 2012년 179명, 2013년 20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경장북은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저소득 장애인 난방연료비 및 주거환경 개선비, 장애인 자녀 장학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문경장북 관계자는 "사업비가 한 정되어 있어 늘어나고 있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지역 주민들의 후원금이 힘이 되고 있다"며 "지역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괴산장북, '사랑의 경차' 기증받아

김대식 한의원 · 소리샘보청기가 후원

괴산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정효선, 이하 괴산장북)이 '사랑의 경차'를 기증받았다.

괴산장북은 2월 17일 김대식 한의원(원장 김대식)과 소리샘보청기(사장 김홍순)로부터 지역 장애인을 위해 쓰일 차량 한 대를 전달받았다.

김대식 한의원과 소리샘보청기

는 괴산장북에 차량을 기증하기 위해 각각 6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괴산장북 정효선 관장은 "장애인을 향한 지역사회의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기증된 차량이 지역 장애인을 위한 복지 사업을 펼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전국에 17개 시·도 협회와 231개 시·군·구 지회를 두고 있는 비영리 순수 장애인단체입니다.

또한 이 나라 500만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각종 교육사업, 장애인예술제 및 중증장애인배우자 초청대회, 장애인자립작업장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를 선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장애인복지를 꽃피우고 이들이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으로 확신하며 '사랑 나눔 운동'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 회원구분

일반회원1 (2천원/월)	일반회원2 (5천원/월)	일반회원3 (1만원/월)
특별회원1 (3만원/월)	특별회원2 (5만원/월)	특별회원3 (10만원/월)
단체회원 (연 20만원이상)	기금회원	물품회원

■ 후원금 납부방법

- 지로, 자동이체, CMS
- 후원계좌 : 국민 822-01-0136-451
농협 033-01-174991
- ※ 후원금은 연말에 소득공제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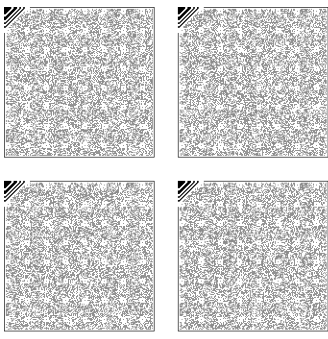
- ① 전화신청 : ☎02)796-4280
- ② 홈페이지 신청
협회 홈페이지(<http://www.kapd.or.kr>) 접속 - 나눔마당 - 후원신청

■ 2014년 1월 후원자 명단(가나다 순)

김경희, 김구환, 김영진, 김인수, 김정기, 김정태, 김정훈, 김준곤, 김진호, 김천장애인종합복지관, 김형욱, 김환경, 남용원, 박소연, 박종형, 반형만, 서동녀, 선병욱, 아워홈, 우병훈, 우지현, 원종빈, 유재복, 육근록, 윤채환, 이은정, 이태훈, 임채중, 장추자, 정다운, 정선용, 주명희, (주)사람과사람사이, 주승운, 주영래, 하정미, 해피빈

(후원자님이 후원해 주신 후원금은 500만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 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12. 명사가 성, 수, 격에 따라 굴절할 때 형태가 변화하는 부분을 이르는 말.

14. 보통 사람보다 훨씬 센 힘.

16. 분자 안에 있는 전자 또는 분자 자체의 들뜬 상태의 입자들을 모이게 한 후 동시에 낮은 상태로 전이시킴으로써 보강 간섭을 이용하여 빛을 증폭하는 장치.

17. 자신이 맡은 직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일.

을 갖추어 이르는 말.

19. 땅의 위.

20. 아무 뜻이 없음.

21. 질병이나 병원균 따위를 견뎌 내는 힘.

| 세로열식 |

2. 한국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

4. 자동차, 자전거 따위의 바퀴 굴통에 끼우는 테.

7. 일본의 SONY사가 1999년에 팔기 시작한 세계 최초의 가정용 애완 로봇.

9. 술을 마시며 즐겁게 노는 간단한 잔치.

10. 주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걸리는 호흡 계통의 병.

11. 학문이나 기술의 일정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가르침.

| 가로열식 |

1.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 ‘겨울왕국’의 OST 제목.

3. 16세기 중기 바로크 초기 이후에 발달한 악곡의 형식.

5. 인공으로 만든 명주실로 짠 비단.

6.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상태.

7. 우상(偶像)을 뜻하는 영어로 어원은 그리스어이다. 우상적인 존재, 인기 있는 사람을 뜻한다.

8. 한 문장에서 주어의 움직임, 상태, 성질 따위를 서술하는 말.

12. 피부의 털구멍 따위로 화농성 균이 들어가 생기는 염증.

13. 입안 및 치아의 질병이나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의사.

15. 제기된 문제를 해명하거나 엷힌 일을 잘 처리함.

18. 어린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

응모요령

‘★’에 있는 말로 단어를 조합해 우편엽서에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미키

인체의 기능을 보조하거나 교정하는 장치로 신체기관을 대체하는 경우 의지(의족, 의수)로 불린다.

1월호 정답

월 체 어

당첨자

심정자 경기 의정부 호원2동

최현주 강원 춘천시 영서로

김선영 경기 오산시 부산동

다른 그림 찾기

DIFFERENT SEARCH

두 사진에는 3곳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의시설중앙지원센터는 전국 17개 광역센터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월 28일 여의도 이룸센터 회의실에서 '2014년 1/4분기 편의증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응모요령 : 2장의 사진 중 아래의 사진에 서로 다른 부분을 표시하고(2개 이상) 절취한 후, 우편엽서 뒷면에 붙여서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달 정답자 세 분에게는 가브리엘 천연공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연비누'를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가브리엘 천연공방의 '천연비누'

천연화장품 & 천연비누



당신의 피부...

피부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연을 생각하는 아인미의 모든 원료는 화학원료가 아닌, 자연 속의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과 천연광물, 천연색소와 화장품 원료 기준에 적합하고 검증된 원료들로만 만들어진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자연을 힘으로 스트레스와 유해물질들로 지치고 손상된 당신의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인미 비누는, 천연비누업계 최초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 및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받은 제품을 취급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천연주방세제

※가브리엘 천연공방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쓰여집니다.

■문의

Tel. 930-0783 Fax. 930-0784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021-21

http:// www.gabrielcenter.or.kr



Let's go!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www.seoul-wheelchairmarathon.or.kr

제23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4월 26일(토) 오전 8시
서울잠실올림픽주경기장

주최

KAPPD 사단 한국지체장애인협회
Korea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SAD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Seoul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KAFTD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주관

S.I.W.M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 조직위원회
Seoul International Wheelchair Marathon Organizing Committee

후원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보건복지부 NPS 국민연금공단
Ministry of Health & Welfare National Pension Service

KOSA 대한장애인체육회 KBS
Korea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국립한경대학교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협찬

신한금융그룹 사랑의열매
Shinhan Financial Group Love's Harvest

재정후원

KSPOT 국민체육진흥공단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

공식음료 POCARI SWEAT



Seoul International Wheelchair Marathon Organizing Committee

E-room Center 22, Uisadang-daero Yeongdeungpo-Gu, Seoul, Korea 150-917 E-mail. seouliwm@gmail.com Tel. +82-2-2289-4376, Fax. +82-2-2289-4379